



VISION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시작하며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2005년 을유년의 희망찬 새 해가 밝았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지난 해 어려운 여건하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각 분야가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시공 능력 평가 1위 달성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1978년 매출 166억원의 증견 회사에서 출발한 지 27년만인 2004년에 시공 능력 평가 1위를 달성하며 업계 리딩 컴패니(Leading Company)로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LCD 하이테크 공장 시공 및 공정 관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두바이에 세워질 160층, 높이 700m가 넘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 두바이 타워」를 영국·호

주·일본 등 초고층 빌딩 건설 실적을 보유한 세계 유수의 건설 메이저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로서 대만 금융센터와 페트로나스 타워 공사에 이어 두바이 공사까지 세계 3대 마천루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국내 최대, 세계 3위 규모의 해상 교량인 영종도 제2연육교 공사 시공을 비롯하여 1994년 마포 재건축 아파트를 선보인 이래 NCSI 7연패에 빛나는 국내 최고 브랜드인 래미안(來美安)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울진 원전 5호기 준공 및 원자력 안전마크 취득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도 2003년 6월 신월성 원전 1,2호기를 수주하여 원전 핵심 설비인 NSSS(Nuclear Steam Supply System)를 포함한 원전 1기에 대한 전 공정을

단독으로 책임 시공하게 되었으며, 기 시공중인 울진 원전 5,6호기 공사 중 5호기를 2004년 7월에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써 1991년 원전 진출 계획을 수립한 지 13년만에 독자적인 원전 건설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울진 원전 5,6호기 공사는 1998년 9월 지하 공동구 공사를 시작으로 본 공사 착수 전에 지하 공동구를 조기에 완료하여 옥외 매설물을 지하 공동구에 집중 설치함으로써 시공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자체 시행중인 「공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협력 업체 육성에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최초 콘크리트 타설에서 성능 시험까지 국내 원전 건설 사상 56개월이라는 최단 공기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5호기 주공정인 주제어실 및 전기실 상단까지의 구조물 공사를 최초 콘크리트 타설 시점으로부터 19.7개월만에 완료하여 영광 5호기 대비 39일(1.3개월)의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후속 공정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이상의 시운전 여유 시간을 확보하여 발전소 안전과 5호기의 성공적인 준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선형 호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용접의 건전성 확보가 까다로운 응축수 탱크 설치 공사에 기존 시공해 오던 SMAW(수동 용접) 방법에서 탈피하여 FCAW(반자동 용접)을 적용함으로써, 용접 결함률을 3.5%에서 0.7%로 감소시켰고, 원전 건설 공기 19일을 단축시키는 등 시공 전 사전에 설계·기술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고, 각종 검증 및 확인 작업을 통해 시공성과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였으며, 이 FCAW 용접 방법을 이용한 응축수 탱크 설치 기술로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 안전 마크를 수여받음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공함으로써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선형 호기에 비해 많은 신공법·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시공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투철한

주인 의식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기술력 향상으로 제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한국 표준형 원전의 완성을 이룩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쾌적한 환경 공간 창조'라는 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1994년부터 국내 업계 최초로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였다.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술, 안전 사고의 시스템적인 예방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2002년부터 기술 전문가 조직인 T.A팀(Technical Advisory Team)을 운영하고, 2004년 선진형 보건 안전 시스템인 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 운영하여 업계에서도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주에서 준공까지 건설 전 단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찰 계약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원인을 사전 예방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회사의 장기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선진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03년에 기술력 향상 방안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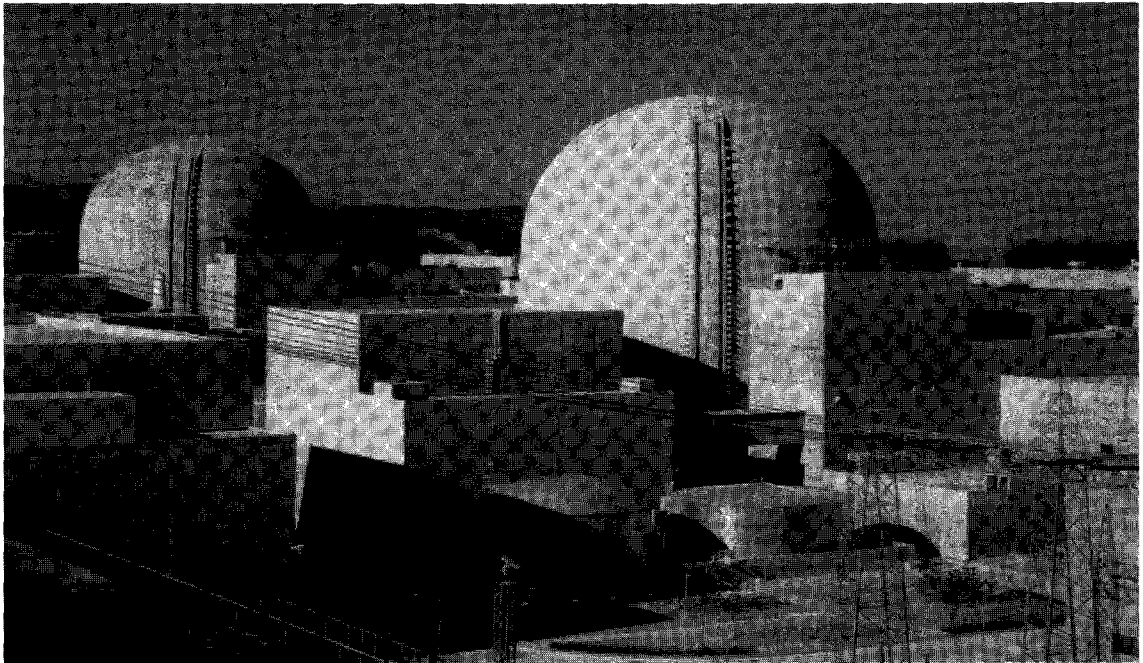
립하였고, 기술 전문가의 확보와 양성, 우수 현장 소장 양성 등의 실천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시공 관리 기술의 획기적인 제고는 물론이고 공사 관리 Process, 기술 표준 등의 제도 시행중의 문제점과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실천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시그마 경영 혁신 기법 도입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경영 분야에 걸쳐 효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고객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3년부터 선진 경영 혁신 기법인 6시그마(Sigma)를 도입, 노력하고 있다.

2004년까지 품질·안전·외주 등의 내부 효율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건설업에 맞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각 본부, 주요 현장별로 경영 목표와 연계된 핵심 개선 영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도입 3년차의 실천 단계에 진입하는 6Sigma는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임직원들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시너지와 가치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진 5·6호기.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최초 콘크리트 타설에서 성능 시험까지 국내 원전 건설 사상 56개월이라는 최단 공기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5호기 주공정인 주 제어실 및 전기실 상단까지의 구조물 공사를 최초 콘크리트 타설 시점으로부터 19.7개월만에 완료하여 영광 5호기 대비 39일(1.3개월)의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후속 공정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이상의 시운전 여유 기간을 확보하여 발전소 안전과 5호기의 성공적인 준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전을 향한 노력 경주

시대적 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있으며, 이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건설업도 환경 파괴가 아닌, 환경을 치유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산업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일에 대한 꿈과 열정, 사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술 혁신, 고객

만족을 위한 변화와 개혁, 인재 중시, 정도 경영, 나눔 경영을 회사의 근간으로 삼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한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값진 도전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30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자신감을 갖되 결코 자만하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책임 의식으로 기꺼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며, 삼성물산(주) 건설부문과 협력 업체 모

두는 하나의 삼성 가족으로서 국가 경제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재무장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정도(正道)만을 지키며, 건설 경영을 통해 업계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건설 회사’라는 비전을 향해 ‘제2의 도약’을 시작하며, 미래의 영광의 결실을 위해,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 힘차게 전진한다.

